

대 회 사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논의하고, 미래 양국이 더욱 돈독한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한일불교문화교류 대회>가 어느덧 서른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 나라의 불교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에 나란히 서있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불교계가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회기간 중에 한일불교의 상징인 신록사 「인류화합 공생기원비」 참배를 계획한 것은,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실천하는 것이자 상호관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신뢰의 뜻으로 마음 깊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계의 뜻 깊고 소중한 마음에 한국불교계는 환영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이 일본불교계와의 우의를 다지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미래 세대의 포교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본 주제는 불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입니다만, 동북아 불교의 중심인 한국과 일본이 함께 모범이 되는 선례를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세계 불교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내의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양국의 사찰 간 청소년 교류에 적극 나서 주시길 양국 불교 지도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금번 36차 대회가 효의 근본도량인 이곳 용주사에서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한일불교계의 건전한 미래를 계획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상생과 화합, 그리고 나눔과 기쁨을 실천하는 뜻 깊은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불교계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후지타 류조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한국에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불교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대회 성료에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